

# 새 물결 일고 있는 아동도서 출판

## 신생출판사 교양도서 개발 긍정적이나 여전히 문제점 많아

조대현  
아동문학가

최근, 지난 한해 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아동도서 전반을 일별해 볼 기회가 있었다. 그 중 유아물과 전집물을 제외한 8백여 종의 도서를 점검해 보면서 일차적으로 느낀 소감은 최근 10년 안팎에 창립된 신생 출판사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드러나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역시 이들 출판사에 의하여 주도된 교양물이 아동도서 시장을 석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아동도서' 하면 몇몇 대형출판사를 연상하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인식은 불식돼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출판의 주종도 동화집과 위인전 등 문학 위주에서, 종교 과학 역사 경제 등 교양물쪽으로 그 분야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이번 점검에서 뚜렷이 읽을 수 있었다.

이와같은 변화는 80년대 후반 출판자유화 조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들인데 그것이 90년대에 들어와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까지 아동도서가 몇몇 유명 출판사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온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변모는 우리나라 아동도서 출판계에 새로운 물결을 몰고 올 조짐으로 보여 매우 희망적인 관측을 자아내게 한다.

### 전문성이 결여된 교양도서

그러나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신생 출판사들이 좁은 시장을 앞에 놓고 출판경쟁을 벌이다 보니 여기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판매경쟁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각 출판사가 기획출판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 대부분의 교양도서가 내용·제작 양면에서 아동도서로서의 품격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내용면의 결함을 지적하자면 집필의 비전문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동도서는 그 성격상 쉽고 재미있게 써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또한 교육적 효용 때문에 그 어떤 성인용 도서보다도 내용에 정확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특히 어린이의 학습과도 직결이 되는 교양도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신생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각종 어린이 교양도서는 집필 단계에서부터 각 분야 전문가를 배제하고 아동문학가에게 전권을 위임함으로써 내용 구

성에 전문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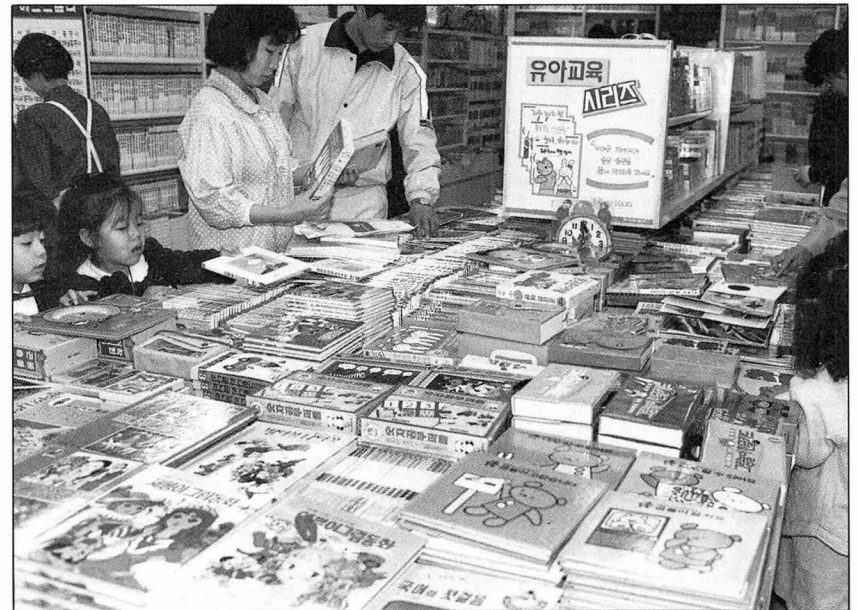
예를들어 공해에 대한 아동용 교양도서를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일차적으로 출판사가 원고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놓고, 그 다음에는 전문학자와 교육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국민학교 수준 어린이에게 어떠한 지식과 생활태도를 길러주겠다는 주제의 범위와 집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아동물 전문필자와의 상의를 거쳐 원고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준비단계의 과정을 일체 생략한 채 곧바로 아동문학가에게 집필을 의뢰함으로써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꼭 필요한 항목이 빠지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문을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핵심 부재의 교양도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내용상에 큰 하차나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교양도서라면 이미 그 가치는 반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내용 서술의 기술방식이다. 문학작품이 정서에 호소하는 글이므로 그것대로의 효과적인 묘사수법을 쓰고 있듯이,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을 요하는 각종 교양도서에는 또 그것대로의 적절한 기술방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다만 어린이의 이해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모든 교양도서를 마치 생활동화, 풀어나가는 듯한 수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높이기 보다 오히려 내용의 초점을 흐려놓음으로써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만약 그것을 문학 전문가 아닌 해당 분야 아동물 전문 필자에게 맡겼더라면 주제의 전달과는 별 관련이 없는 장황한 아동생활 묘사로 귀한 지면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용전달의 묘를 살리지 못한 졸렬한 기술방식이 결국 모처럼 기획상품으로 내놓은 교양도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날림제작은 아동의 독서태도 그르쳐

제작면에서 결함을 지적하자면 편집의 안이성과 날림성 제작 행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글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하듯이 문학도서와 교양도서 사이에는 편집요령에도 시각성을 고려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 동화책이 활자와 삽화의 적절한 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각종 지식과 논리적 사고 체계를 전달하는 교양도서에는 필연



적으로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와 통계 및 도표가 결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도서가 성인용 도서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자료는 부수되는 것이 교양도서의 불명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단행본류의 교양도서를 보면 대부분의 도서가 통계나 도표 따위는 엄두도 못내고, 심지어 사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손쉬운 삽화를 그려넣어, 그것이 동화책인지 범용이나 경제를 다룬 교양도서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게 하는 애매모호한 편집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편집자가 교육적 의도에서 일부터 그랬다기보다 자료를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비전문가의 눈에도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

이와 같이 안이하고 무성의한 편집 태도는 다만 도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읽는 어린이에게 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더욱 염려스럽다. 기쁘거나 소비품조가 만연한 이때, 교양도서마저 1회용 소비품격의 날림이라면 어린이에게 책을 두고 두고 읽어 자기수련과 교양습득에 이용하라고 권할 만한 명분조차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출판사의 날림제작 행태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특히 삽화와 표지 디자인. 이것은 비단 교양도서뿐 아니라 아동도서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요즘 아동도서에 나오는 삽화는 내용 보완이나 독서욕구 유발 등, 그

어는 것 한가지도 삽화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스케치 자체가 조잡한 그림이 많고, 삽화가 꼭 들어가야 할 장면은 그냥 지나친 채 엉뚱한 장면이 무의미한 삽화를 배치함으로써 글 내용과 삽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심한 경우는 밤을 그려야 할 장면에 낮장면을 그린 삽화도 있고, 일제시대 농촌에 체크무늬 티셔츠를 입은 농부가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표지는 책의 얼굴로서 가장 신경써 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동도서는 책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강렬한 색채의 원색그림을 지면 전체에 깔아 아동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유치한 패션을 유행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무신경하고 저속한 도서 제작 행위는 영상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미의식을 천격화시키고, 책 내용의 부실성과 어울려 어린이로 하여금 고급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오늘날처럼 부박한 문화가 어린이의 생활영역까지 침식해 들어오는 사회환경 속에서 그래도 어린이에게 건전하고 뿌리 있는 문화의식을 전수시킬 수 있는 수단은 독서밖에 없지 않은가. 아동도서가 제구실을 못하면 아동문화 전체가 위협받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 주로 신생 출판사들에 의하여 개발된 아동용 교양도서에 대하여 몇가지 결함을 지적해 보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들의 노력을 헐뜯자는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모처럼 제 방향을 찾은 아동

도서의 질을 보다 높이는 계기를 삼자는 데 더 큰 뜻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글 앞머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90년대 전반기에는 우리나라 아동도서 출판계에 새로운 전기를 몰고 올 징후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명랑, 괴기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치달던 일부 출판사들이 교양물 쪽으로 방향을 돌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인문·사회분야의 잡다한 지식과 새로운 조류를 어린이에게 알맞도록 고쳐 써내는 작업을 펼치는가 하면, 그 동안 외판에 의한 전집물 발행에만 치중해 오던 대형 출판사들이 서서히 시판 쪽으로 눈을 돌려 단행본 발행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여 출판인은 물론 작가 편집인들이 자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되새겨 보는 것은 아동도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 끊임없는 보람작업

먼저 출판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교양물 전문 집필자를 발굴 육성하는 일이다. 아동도서의 주종이 동화집과 위인전이었던 시대에는 아동문학가들만으로도 필자 수요에 별 지장이 없었지만, 사회 각 분야를 커버하는 다양한 교양도서를 개발해야 하는 장래에는 각기 그 방면에 정통한 교양물 전문 필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을 길러내는 일이 수월치 않아

### 교양물이 아동도서의 주류를 이루는

### 시대에는 그 누구보다도 편집인의

### 역할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편집인은 설새 없이 새롭고

###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해내야 한다.

### 그러나 앞으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 어렵다. 한가지 주제를 개발해

### 책을 엮을 때마다 편집인은

### 집필자보다 더 그 방면에 정통한

###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당분간은 아동문학가들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작가들이 집필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필에 필요한 자료는 출판사측에서 수집·제공해주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출판사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출판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전담기구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기구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료를 축적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기획을 수립한다면 지금과 같은 날림제작 때문에 출판사가 비난 받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한편 아동문학가들도 집필영역이 확대되는 이런 시대에는 문학 이외의 사회 각 분야에 관

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교양물 집필의 기회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능히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집필자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 챙겨야 할 것은 물론 집필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흥미진진하게 어린이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기술방식을 개발해내는 일이다. 이제까지는 손쉽게 생활동화 기법을 응용하며 교양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법을 써 왔지만 앞으로는 해당 분야에 따라 그에 걸맞는 효과적인 기술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의 아동문학가 M·일리인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본업이 아동문학이지만 인류의 진화와 자연의 체현상에 대해서 매우 깊이있는 아동용 교양도서를 집필했다. 그는 이런 도서를 쓰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고고학 발굴 현장에 참여하는가 하면 자연 속에 들어가 몇년씩 관찰을 계속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생생한 문체의 독창적인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교양물이 아동도서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는 그 누구보다도 편집인의 역할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아동도서 편집인이 하는 역할이란 작가에게서 원고를 받아 알맞은 삽화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글과 그림을 적절히 배치하여 지면을 구성하는 정도의 단순 조립 과정에 불과했다. 거기에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표지 디자인이나 광고문안을 어떻

게 짜 다른 책보다 돋보이는 책, 그리하여 영업이 잘 되는 책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편집인의 주 관심사가 되다시피 했다. 실상 이와 같은 편집 관행하에서는 편집인의 개성이나 주관의 책 속에 반영되기도 어렵고, 또 구태여 그런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출판사의 기획에 의하여 제작되는 교양도서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필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원고의 수준과 집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모든 것이 편집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서제작의 전 과정에 걸쳐 편집인의 냉철한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편집 체제하에서는 책 내용에 대한 책임까지도 편집자가 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편집인은 설새 없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해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아동도서 출판계에도 아이디어 경쟁의 불이 붙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어려울 것이다. 한 가지 주제를 개발해 책을 엮을 때마다 편집인은 집필자보다 더 그 방면에 정통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철학에의 초대

오너, 헌트 지음/곽신환, 윤찬원 옮김/6,000원

철학자 중심의 연대기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입문서들과는 달리 문제 중심의 연구 방향을 취해 하나의 철학적 사고 유형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한 비판과 풍부한 예로써 초심자의 이해와 흥미를 돋군다.

### 대화의 철학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9,000원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대화운동의 일환으로, "대화"를 통해 건전한 실천철학이 자리잡게 하자는 취지 아래 동서양의 고전 철학 자료 중 대화 형식을 취한 철학적 작품 중심으로 철학적 대화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 칼 포퍼의 과학철학

조용현 지음/6,000원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 과학 방법론에 머문 다른 과학철학에 비해 칼 포퍼의 과학철학은 과학의 성과를 자신의 체계 속에 내면화하면서 실재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찾아내고자 하는 점이 그 특징임을 밝힌다.

### 여성과 종교

D.L. 카모디 지음/강돈구 옮김/5,000원

고대종교에서 현대종교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밝힌 뒤, 다가올 미래에 종교가 여성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여성 해방을 위해 기여해야 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